

“기차여행객에 맛있는 요리 대접하고 싶어요”

●박석민 전 목포역장

목포 원도심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피렌체역’ 오픈 퇴임 후 이탈리아 요리 학교 졸업...셰프 자격 취득

“기차여행 1번지 목포의 맛집을 꿈꿨습니다. 좋은 요리, 건강한 요리를 대접하겠습니다.”

3차례 목포역장을 역임하며 목포관광 활성화와 기차 여행객 유치에 이바지한 박석민(60·사진) 전 역장이 퇴임 후 특별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해당 레스토랑은 목포역 원도심에 위치한 이탈리아 음식점 ‘피렌체역’이다.

박 전 역장은 평소 요리에 관심을 갖고 퇴직 전부터 요리 공부를 시작했다. 근무 중 틈틈이 공부해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철도공사 사보, 목포 KBS, 목포 극동방송의 기차역 맛집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전 역장은 요식업 창업을 위해 더 전문적인 요리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탈리아 유학을 결심했다.

그의 결정을 만류하는 이들도 많았다. 박 전 역장은 유학을 가기엔 늦은 나이인데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4년 전 폐암 수술을 한 바 있어 주변인들의 걱정이 컸다.

하지만 박 전 역장은 ‘숙식만 해결하면 된다’

는 생각으로 이탈리아로 떠났다.

현실은 냉혹했다. 박 전 역장은 무비자 신분이라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한 끝에 이탈리아 명문 요리 학교인 ‘Chef Academy’에 입학하기로 했다.

‘Chef Academy’는 박 전 역장이 나이가 많고 이탈리아어가 서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진도를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입학을 거절했다.

그러나 박 전 역장은 학교 측에 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이탈리아어를 빨리 습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최종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파나는 노력의 결과로 그는 ‘Chef Academy’에서 파스타, 피자, 젤라토,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 수업과 시내 레스토랑에서 실습까지 마친 후 1년 만에 이탈리아 Umbria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셰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국했다.

박 전 역장은 담백하고 건강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든다. 이탈리아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한 특징을 갖는다. 토마토 소스는 각종 야채와 생토마토를 넣어 4시간 동안 푹 우려며 치



킨스톡은 생닭과 야채를 넣어 4시간을 끓인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탈리아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을 유지 중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박 전 역장은 레스토랑에 방문한 이들이 이탈리아에 온 듯한 느낌을 받도록 가게를 꾸몄다. 그는 지역 작가 후원 차원에서 이탈리아 명소 6곳을 벽면에 수채화로 그리게 했다. 벽면에 그려진 피렌체 두오모, 로마 콜로세움, 앙코나, 베네치아, 피사의 사탑 등이 이탈리아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꼬마 미술관을 만들어 이탈리아 작품이나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소도시를 방문 했을 때 집집마다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은 박 전 역장은 레스토랑 정면에 ‘꽃의 도시 피렌체’라는 테마를 정하고 입구에 꽃 그림과 제라늄 등 생화 화단을 만들어 항상 꽃을 볼 수 있게 했다.

박석민 전 역장은 “기차여행 1번지”로 꼽히는 목포를 더욱 알리고 많은 여행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목포의 명소를 보고 또 피렌체역에 들러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담양 창평농협 운영 영화관·노래교실 ‘호응’

담양 창평농협은 “최근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영화관’과 ‘신바람 노래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도움으로 영화 상영을 통해 농촌지역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바람 노래교실은 8주 일정으로 지난 4월 개강했다.

박태식 창평농협 조합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농협사업에 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조합원들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영암경찰, 자연재난 공동대응 합동 간담회

영암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남주출에서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나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영암군청 재난대응팀장, 영암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팀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취약개소 현황과 유사시 기관별 역할 및 임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교신·점검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나주경찰, 산사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나주경찰서는 “최근 유관기관과 함께 장마철 산사태 대비 재난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나주시 경원동 소재 전원주택 단지 부근 국도에서 나주경찰, 나주시청, 나주소방 등 유관기관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인명 구조 ▲재난지역 교통통제 ▲피해 복구 등을 실시했다. /나주=정준환기자



목포경찰,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피해 조사

목포경찰서는 14일 “지난 5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목포시 관내 13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성폭력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이번 장애인 시설 점검 및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통해 6건의 범죄피해 의심사례를 발견, 발견된 사례는 추후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연계해 피해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앞으로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적극 실시해 피해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호남삼육고 신문읽기동아리, 본보 방문 현장학습

호남삼육고등학교 신문읽기동아리(지도교사 강은구)는 지난 12일 오전 광주매일신문을 방문, 신문 제작 및 인쇄 과정 등을 확인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신문읽기동아리 학생들은 박민우 업무국장 안내로 신문사와 인쇄 과정 등을 살펴봤으며, 박은성 편집국장으로부터 지방신문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진지한 토론을 나눴다. 박은성 편집국장은 “신문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

로 보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편집국을 비롯해 광주매일TV본부, 사업본부, 마케팅본부 등 각 실·국을 둘러보며 신문사의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구 교사는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이 어떻게 신문 지면에 반영됐는지 알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토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박희준기자



전남도-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발

전남도가 중국 장시성 화동교통대학교 대학생 30명을 초청, 15일까지 8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 및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 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9년 시작된 전남도와 장시성 간 청소년 교류는 지금까지 총 21회 96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학생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엔 장시성 대학생들 전남으로 초청해 이뤄졌다.

지난 9일 열린 환영식에서는 장시성 교류단과 전남 대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을 진행했다.

이러 두 나라 교류단은 9-10일 여수 루지와 아쿠아리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11-12일에는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염색박물관,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했다. 닭갈국, 떡갈비, 나주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통해 남도의 맛과 멋을 체험하며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청소년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해 전남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개발공사,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전남개발공사는 14일 “전국 광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 50001은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직적인 관리 체계 조성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규격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제로에너지주택 등 탄소중립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계절·일별 에너지 수요 패턴 분석에 따른 효율적 시설 운영,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제고 활동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탄소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적극 노력해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시상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 대상자들에게 우수 공무원 상장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최우수상 주인석 도시공원과 사무관(중앙공원1지구 광주대표연드마크 공원의 시작) ▲우수상 김용주 도시계획과 주무관(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천800여원), 손은영 외국인주민과 사무관(광주

살이 A to Z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려상 송진웅 5·18민주과 주무관(하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 최문석 회계과 주무관(20년만의 열린청사 재탄생) 등 총 5명이다.

광주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해 실적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여식에 이어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 광주시 감사위원회 임대진 사무관이 ‘적극행정,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를 주제로 적극행정 지원 제도·사례 등을 교육했다. /박선경기자

영광군1388청소년지원단, 유해환경 지도 캠페인

영광군1388청소년지원단은 “최근 중·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경찰서, 1388청소년지원단,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영광지구 5개 기관 및 단체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읍 대신지구와 법성면 일대에서 청소년 도박·마약 예방 캠페인을 펼쳤으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문구 부착 여부 등 업소를 대상



으로 지도·점검도 실시했다. /영광=김동규기자